

탐라인의 삶의 흔적

삼양동 선사유적지에서는 탐라인의 삶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오랜 세월 견뎌온 유물에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던 탐라인의 숨결이 살아있다. 먼 옛날 이 땅에 터를 잡고 머물렀던 그들의 흔적을 만나보자.



선사로 | 제주시 삼양2동 2139-9 ~ 제주시 삼양2동 2114-1(약 0.4km)

지석15길 | 제주시 삼양2동 2137-20 ~ 제주시 삼양2동 2113-1(약 0.4km)

원당로 | 제주시 삼양1동 2140-11 ~ 제주시 삼양1동 1026-1(약 1.4km)

서흘길 | 제주시 삼양1동 1598-2 ~ 제주시 삼양1동 1541-1(약 0.7km)

감수복길 | 제주시 삼양2동 2444-1 ~ 제주시 삼양2동 1949-1(약 0.6km)

별랑길 | 제주시 삼양3동 2678-1 ~ 제주시 삼양3동 2621-4(약 0.8km)

설촌로 | 제주시 삼양2동 2222-1 ~ 제주시 삼양2동 2100-1(약 0.4km)

선사로 / 지석15길 | 삼양동 선사유적지

선사로는 선사유적이 발굴된 의미를 부여한 이름이다. 삼양동 선사유적지는 탐라국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발견된 곳이다. 이 지역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토지정리를 하던 도중 많은 토기와 집터가 발견되어 유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다.

이 유적은 제주도 서쪽 지역의 고산리 선사유적지, 남서쪽의 화순리 선사유적지와 더불어 과거 제주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삼양동의 선사유적은 청동기 시절 해안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지와 내부 시설들이 대부분 온전한 채로 발견되어 생생한 현장을 살펴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건축 기술이 없던 선사시대에는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연에 적응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일례로 제주 사람들은 거센 바람을 피하려 출입구를 남향으로 만들어 놓았다.



선사유적지

이 밖에도 유적지 주변에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으로 알려진 고인돌의 흔적도 남아있다. 지석묘라고도 부르는데 모임장소나 제사장으로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선사로 서쪽으로 나 있는 지석15길은 이 일대에 지석묘가 있었다는데서 부여된 이름이다. 별다른 도구가 없었던 당시에는 지석묘를 만들기 위해 무거운 돌을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삼양동 선사유적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것이다.

원당로 | 원당봉

원당로는 원당봉 입구와 이어지는 길을 의미한다. 삼양동 해안가에 있는 원당봉은 이 오름 중턱에 원나라의 당인 원당(元堂)이 있어서 원당봉, 조선시대 때 원당봉수가 세워져서 망오름, 삼양동에 있어서 삼양봉 등으로 불렸다. 원당봉에 있는 불탑사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오층석탑이 남아있다.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고려시대 석탑으로 보물 제



불탑사오층석탑

11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탑은 원나라의 기황후와 관련이 있는 탑이다.

원나라의 기황후가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끝에 명당 자리에 탑을 세우면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나라 전국을 수소문 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명당이 원당봉이다. 기황후가 원당봉에 원당사를 짓고 탑을 세워 불공을 드린 끝에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오층석탑이 있던 원당사는 이후 조선시대에 폐사되었지만 20세기 초에 그 자리에 불탑사가 세워졌다.

서흘길 / 감수북길 / 벌랑길 / 설촌로 | 삼양동과 검은모래 해변

원당봉 서쪽에는 다른 곳과 달리 검은색을 띠는 모래사장이 있는 삼양검은모래해변이 있다. 삼양검은모래해변의 검은모래는 철분이 많아 찜질을 하면 신경통이나 관절염 등에 좋다고 알려져 왔다. 여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찾아 해수욕을 즐긴다. 마을에서는 매년 삼양검은모래해변 축제를 열어 다채로운 행사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검은모래해변 주변은 바다와 접하고 있는 삼양동 여러 마을의 옛 지명을 반영한 길들이



검은모래해변

지난다. 해변 동쪽의 **서흘길**은 서흘포라는 옛 지명을 의미하는 길이다. 포구의 지형이 호미처럼 휘어 있다고 해서 서흘포 또는 설개라고 불렀다. 해변 서쪽으로 지나는 **감수북길**은 물과 관련된 지명을 반영한 이름이다. 단물이 많이 흘러나온다는 뜻에서 감물개 또는 가물개로 불리다가 감수동(甘水洞)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삼양포구에서 일주동로까지 이어지는 **벌랑길**은 칠벌(伐), 물결랑(浪)을 써서 파도소리가 서로의 파도를 가르는 듯하다는 의미라고도 하고, 벼랑 끝에 있던 마을이라는 의미라고도 한다. 이 밖에도 일주동로에서 삼양검은모래해변까지 이어지는 **설촌로**는 설촌마을의 지명을 의미하는 이름이다. 삼양동은 이렇게 여러 마을로 지내다가 약 백 년 전에 이 지역의 유지들이 높이 솟은 원당봉의 기운 때문에 큰 인물이 나지 않고,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 해서 설개, 감물개, 매촌 세 마을을 합해 삼양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전한다. 이때부터 삼양이란 지명이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